

◆ 1993年度 第 3 次 理事會 開催 ◆

韓國電機工業振興會 1993年度 第 3 次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開催된다.

- 일 시 : 1993. 12. 9 (木) 10:30
- 장 소 : 무역회관 무역클럽 (51층)
- 참석대상 : 任員社 代表 21名
- 내 용
 - '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
 - 안건 심의

南美 市場開拓團, 3천만\$ 수출 상담

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(14일간)까지 브라질 등南美 3개국에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, 큰 성과를 거두었다.

최근 민영화 정책에 의한 시장경제 제도도입과 인플레이 안정에 따른 공업화 진전으로 대규모 발전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南美 지역의 수출시장확보를 위해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칠레 등 3개국에 파견된 이번 수출시장 개척단은 本 振興會 任寅柱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金星産電, 曉星重工業 등 重電業界 大·中小企業 8개社가 참여해 브라질 6백만\$, 아르헨티나 1천 4백만\$, 칠레 1천만\$ 등 총 상담액 3천만\$, 상담회사 및 상담건수만도 95개사 180여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.

이번南美 방문기간 동안에는 수출상담 이외도 내년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(SIEF '94)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울러 각 국의 전력청을 방문하여 그 곳 중장기 전원개발 계획을 살펴보고 전력기자재 수급현황 및 입찰구매계획을 파악함은 물론 우리 업체의 프로젝트 진출시 협력키로 했으며 특히, 아르헨티나에서는 “중전기협회”를 방문하여 정보자료 교환과 중전업계 인적교류 및 전시회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조 약정서를 체결키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.

한편, 이들 지역은 민영화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에 따라 장기 전원개발을 적극 추진, 향후 중전기기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聲價가 높아 지속적인 제품홍보와 기술교류 및 입찰활동 강화, 현지 합작투자 등의 장기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할 경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.

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이번 시장개척 활동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국제화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 가능지역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.